



중앙일보



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| 2026년 6월 12일 금요일



오늘, 난 인생을 걸었다

대표팀, 오늘 오전 11시 체코와 조별리그 첫 경기
손흥민 “매 경기 중요...마지막 월드컵, 내가 결정”

11일(한국시간)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 기자회견장.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(34·LAFC)의 얼굴은 유난히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다. 태양과 가까운 고지대 적응 훈련의 흔적이다. 네 번째 월드컵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.

같은 조 멕시코와 체코 기자들은 그를 “손날두”라고 불렀다. 손흥민과 그의 부상 크리스티아누 호날두(포르투갈)를 합친 별명이다.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도 북중미 월드컵의 레전드로 호날두, 리오넬 메시(아르헨티나)와 함께 손흥민을 꼽았다.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이자 아시아 최고 선수라는 평가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. 그러나 정작 손흥민은 “그런 별명을 듣기에는 아직 창피한 것 같다”며 소년처럼 쑥스럽게 웃었다.

이번 대회에서 그를 따라다니는 단어는

‘마지막’이다. 득점왕도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다. 서른넷에 맞는 네 번째 월드컵. 국내의 매체들은 ‘라스트 댄스’라는 전망을 내놓는다.

손흥민은 선을 그었다. “제가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단정지어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. 얘기하는 건 자유지만, 제가 결정해서 선택하겠다.” 욕심만은 아니다. 호날두는 41세, 메시는 39세에 여섯 번째 월드컵에 나섰다. 손흥민은 “월드컵은 꿈꾸는 아이가 되는 무대다. 첫 번째든, 네 번째든, 여섯 번째든 월드컵에 가는 내 마음은 늘 같을 것”이라고 했다.

한국은 12일 오전 11시(현지시간 11일 오후 8시) 체코와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치른다. 과달라하라의 해발 1561m, 강원도 오대산 높이와 비슷한 고지대다.

과달라하라=박린 기자
▶ 2면 ‘월드컵’으로 계속, 관계기사 B6면

‘초유의 투표용지 부족’ 선관위 압수수색

합수본, 중앙선관위 등 7곳 대상
110명 투입, 인쇄계획서 등 확보

6·3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. 출범 이틀 만이다.

합수본은 이날 검사·수사관 등 110여 명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

서울시 선관위, 그리고 선거날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·서초·강남·광진·동작 선관위 등 7곳에 보내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.

압수수색영장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난 5일 사퇴한 노태약(대법관)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, 그리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 등 10명이 피의자로 기재됐다. 합수본은 “경찰에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한 직무유기,

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”고 설명했다.

수사는 투표용지 부족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인쇄 매수 기준 하향을 고의적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. 이번 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본투표용 투표용지 최소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60%에서 50%로 낮췄다. 김성진·임성빈·곽주영 기자
▶ 4면 ‘선관위’로 계속, 관계기사 5면

정청래 면전에서 “사퇴하라”... 여당 내전 격화

8·1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11일 정청래 대표 사퇴론이 분출했다. 장철민 의원은 “정 대표가 당 대표에 도전할 의사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중립성이 유지된다”고 말했다. 임미애 의원은 “지금쯤이면 정 대표께서도 사퇴해야 전당대회 공정 관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 ▶ 관계기사 6면



INSIDE 청년 빈곤층 5년새 2배로 부의 사다리 끊겼다 ▶ 3면

트럼프, 이란 석유 장악 예고 “베네수엘라처럼 통제할 것” ▶ 12면

Week& ▶ 16·17면, 스포츠 ▶ B6·B7면, 날씨 ▶ 18면 구독·배달 문의 1588-3600



대한민국 자동차, 석탄 철강으로는 정상에 설 수 없습니다

VAR
철강 공급망 FOUL